

## ‘코로나19 여파’ 광양제철소 창사이래 첫 유급 휴업

주문량 급감에 지난 16일부터 일부 생산시설 가동 중단  
휴업 기간 평균 임금 70% 지급...희망퇴직은 검토 안해

세계적인 철강경기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일부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창사이래 첫 유급 휴업에 들어갔다.

17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일부 철강제품 생산설비 가동을 멈추고 탄력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의 불황에 따른 철강 수요감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문량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라는 것이 광양제철소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세계철강협회에 발표한 올해 철강수요는 16억5400만톤으로, 지난해 17억6600만톤보다 1억1000만톤 가량이 줄었다.

이에 아로셀로미탈, 일본제철, JFE 등 대부분 글로벌 철강사들은 고로 가동중단,

단기 설비휴지, 감산 등에 따라 인력 구조 조정, 무급휴업 등 다양한 생존 방안을 실시 중에 있었고 일본제철은 2021년 3월까지 매달 2회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스코도 수요감소에 대응하고자 광양 3호로 하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유연생산 체제를 통해 설비휴지가 발생하는 일부 생산설비에 대해 탄력조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로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양제철소는 이번에 설비가 멈추는 부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 QSS(Quick Six Sigma) 활동(포스코형 개선활동) 등을 실시하고, 3월 이상 설비 가동 중단 부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업을 실시한다.

유급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휴업 대상과



인원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주문량이 적어서 생산이 안 되는 공장들은 추가적인 휴업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현재 직원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타사와 같은 희망퇴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최대한 조기에 극복하고 휴업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98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최초의 유급 휴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포스코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인구 15만명의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직원 6400여명과 하청업체 직원 8000여명 등 포스코 관련 종사자가 1만5000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광양제철소의 설비 가동 중단은 당장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하청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을 불러오며, 지자체에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쇄효과 때문에 광양제철소는 물론 지역사회, 광양시도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경제 불황 지속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포스코 유급휴업이 장기화 된다면 결국 지역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광양시와 지역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 면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대권행보 의식?...정세균 총리, 광주·전남 일정 대폭 ‘축소’



블루 이코노미 전남 e-모빌리티 기업 투자협약식

대권행보 논란이 일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17일 광주·전남 방문 일정이 대폭 축소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잇따라 잡혔던 오찬·만찬이 모두 취소됐고, 영광 투자협약식에만 참석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정세균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광주와 전남을 찾은 예정이었다.

특히 여론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그의 방문지가 공교롭게도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고향이자 전 지역구인 영광으로 알려져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날 오전 갑작스레 광

시민단체·언론사 간담회 취소...영광일정만 소화  
총리실 “북한도발에 따른 비상회의 등으로 변경”

주지역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만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정 총리는 투자협약식에 이어 전시관과 대풍EV 생산현장 등을 둘러본 후 광주주요 이동, 급고고속 본사를 찾아 광주지역 고용현황과 사업제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다.

앞서 광주 도착 직후에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주먹밥 도시락 오찬을 계획했다.

또한 공식일정을 마친 후에는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비공개 만찬도 준비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뀐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을 두루 행기는 일정으로 미뤄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대권과 관련, 전남 출신의 이낙연 의원이 출근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전남 출신의 정 총리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예상돼 왔다.

실제 호남을 중심으로 정세균계의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조직확대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에 따른 이날 오전 긴급 회의소집에 따른 일정 축소라고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광주 방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대구에 물품과 자원봉사 등을 지원한 광주에 대한 감사와 격려차원의 일정이었다”면서 “하지만 북한 도발행위 등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인해 영광 투자협약식만 참석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 장흥 ‘서까골 미리내 마을공방’ 행안부 공모사업 전남 유일 선정



장흥군은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서까골 미리내 마을공방’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서까골 미리내 협동조합은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1억원도 확보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유희공간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25곳이 신청해 8개 마을공방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장흥군 ‘서까

골 미리내 공방사업’이 유일하게 이틀을 올렸다.

‘서까골 미리내 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귀촌인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구성, 올해 4월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공동체다.

조합은 돌배, 개복숭아 등 임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공동작업장과 상품을 체험·판매할 수 있는 공방을 조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 교육과 주민 체험, 소풍 프로그램 운영해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마을공방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